

전주대, 인문학도 위한 취업 Festival 성황

재학생 외 특성화고교생·도내 청년 등 1000여명 참여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14일 인문·사회학도를 위한 진로·취업 Festival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게 필요한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전주대 재학생 및 특성화고교생을 포함한 도내 청년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꿈을 만나는 나의 첫 스케치'라는 주제로 ▲ 전주대 출신 선배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기업과 직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는 진로 스케치관 ▲ 면접과 입사서류 컨설팅 등 실질 취업 스킬을 높일 수 있는 취업 스케치관 ▲ 진로 및 취·창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JJ 스케치관 ▲ 스스로의 꿈을 작성해보는 꿈의 스케치관 등 4개 색

선으로 운영됐다.

청년들은 이날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인문사회계열 전공을 기반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관한 설명과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 직업심리검사 ▲ 이력서 사진 촬영 ▲ 입사지원서 컨설팅 ▲ 면접 메이크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인문사회계열 청년들이 꿈을 만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주대학교는 우리 지역청

년들이 미래를 주도하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전주대는 2015년 10월에 대학일자리센터를 개소하여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청년들 위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 진로·취업지원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인문·사회학도를 위한 진로·취업 Festival은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와 K-History 2H 핵심인력양성사업단, 산학관커플링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 2개 팀이 최근 열린 2018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발품콘테스트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비전대, 3D 프린팅·드론 영상 콘테스트 성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한영수) 특성화사업단은 '4차산업혁명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3D 프린팅 및 드론 영상 콘테스트 시상식을 최근 가졌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3D 프린팅과 드론 기술에 대한 학내 불 조성 및 기술 교류를 배경으로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에는 예산 심사를 거친 130여명 31개 팀(3D프린팅 분야(18), 드론영상분야(13))에게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팀당 40만원의 작품제작비를 지원했다.

3D프린팅 분야 대상을 받은 김연장팀의 김유성학생은 "Star / Electron motion Glass Cleaner는 고층건물 창문 청소를 하는 제품으로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구동원리를 기반으로 CATI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델링하여 제작하였으며 현재 특

허출원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드론영상분야 대상자인 '새로운 만남(전라북도, 전주비전대)' 작품은 지적도목화학과 컴퓨터정보과 학생들이 팀을 꾸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은 전라북도의 역사적, 세계적, 현대적 경관 등을 발굴하고 재조명하였다.

본 공모전을 진행한 이근상 산학협력부단장은 "3D프린팅과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식 확산,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제품화로 이어지는 사업기반 마련의 장으로 콘테스트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런 결과물들이 서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는 특성화사업, LINC+사업 등을 운영하며, 산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북지역 취업 미스매칭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 안전 토론회 개최

디베이트 토론·즉흥연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념하고, 생명·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학생 안전 토론회가 지난 13일 전북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안전 토론회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은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 토론과 즉흥연설 두 가지로 진행됐다.

디베이트 토론에는 48명의 학생이 참여해 6개조, 12팀으로 나누어 각자의 입장에 맞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각 조별로 구성원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이 우수한 팀에게는 협력상이 주어졌다.

또 즉흥연설에는 도내 중학생 15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주제를 공개하고, 10분 동안 발언 준비를 한 뒤 4분간 주제에 대해 발언하는 즉흥발언 방식은 이번이 처음 선보였다. 평가 결과 전주근영중 조예담, 군산중 장유노, 전주신일중 최규영 학생이 우수자로 선정돼 교육감 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초청강의를 맡은 캐빈 리(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토론회도 석사과정) 교수는 "강의방식의 학습을 통한 기억률은 5%에 불과하지만 토론방식의 학습을 통한 기억률은 50%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 2개 학생팀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대회 입상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위한 블록 등 공익적 기술 제시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 2개 팀이 최근 열린 2018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발품 콘테스트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소프트웨어공학과 문석암, 오나연 학생 등으로 구성된 'SI 팀'과 '속삭속' 팀은 장애인 주차장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써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주차블럭과 척추 증강증이 있거나 걸음 걸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제 교정이 중요한 사람들이 Body Balance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자세 불균형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주는 기기를 아이디어로 제시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문석암 학생은 "학과에서 선배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위한 주차블럭을 생각해"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공익성 부분에 대한 ICT 기술 활용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갖게됐고, 이런 캠퍼서 모두를 위한 기술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나연 학생은 "모두를 위한 기술"에 초점을 두고 팀원들과 함께 생각해본 아이디어에 대해 멘토링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기술을 만들어 모두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은 이 대회 이전인 지난 11월 8일~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2018 공학페스티벌의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고 드론 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 면접 역량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군산대 일자리센터, 취업 기술을 JOB(잡)아라 특강 실시

군산대학교일자리센터는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14일 군산대학교 학생들의 취업면접 역량강화를 위하여 '취업의 기술을 JOB(잡)아라!'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취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해 이미지메이킹, 면접 시 주의사항, 1분 자기소개 구성법 등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면접 스킬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이 제공되었고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한 스피치 능력 향상 내용들도 소개돼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참가학생들은 "책이나 주변 선배들의 경험담만을 통해서면 면접이 스피치 등 취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스킬을 얻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실제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매뉴얼과 이론만으로는 면접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 면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대학교일자리센터가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14일 군산대학교 학생들의 취업면접 역량강화를 위하여 '취업의 기술을 JOB(잡)아라!' 특강을 개최했다.

통합노조 전북교육청지부, 불우이웃돕기·역량강화 교육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도교육청지부(지부장 김종태 이하 통합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내일부터 18일까지 정읍 학생수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와 함께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첫날 불우이웃 돕기 행사로 참가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연탄 기부에 함께

한다. 다음날 학교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강의와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특강을 통해 직무역량강화에 힘쓴다. 이후 마지막 날에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와 노조의 문제와 개선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